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사회 담당

발 신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02-338-2890 f.counsel@sisters.or.kr)

제 목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보도요청

날 짜 2022. 3. 21. (총 23쪽)

보도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에 깊은 신뢰와 경의를 보냅니다.
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확보와 성평등 사회의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본 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1년 동안 총 87,964회의 상담을 해왔으며, 매년 한 해 동안의 상담통계를 분석함으로써 달라지는 성폭력 관련 상담의 경향을 짚어봅니다.
4. 2021년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전체상담은 1,415회(595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 총 1,322회(537건)에 대한 기본 상담통계와 친족 성폭력 및 역고소 유형 상담의 세부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5. 다음과 같이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을 보내드리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첨부]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23쪽)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I. 2021년 기본 상담 통계	
1. 연도별 상담현황	3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3.5%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5.2%	4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89.8%가 남성, 이중 성인은 66.1%	4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전체 상담 중 65.9%가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32.6%가 대리인 상담의뢰	5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강간 피해 상담 건수 거의 비슷	5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1.5%	6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4.2%	7
8. 피해자 지원내용	8
II. 2021년 상담통계 세부분석	
1. 2021년 친족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10
1-1. 친족 성폭력 피해 중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가 89.5%	
1-2. 친족 성폭력 가해자의 98.7% 남성, 친형제에 의한 피해가 27.6%로 가장 높아	
1-3.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96.1% 여성, 그중 7세~13세인 어린이 시기 피해가 44.7%로 가장 높아	
1-4. 친족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 중 공소시효 도과된 건이 57.9%	
1-5. 대리인 상담 중 78.1%가 가족친인척 상담	
1-6. 피해 생존자의 34.2%가 주변인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말하기를 시작한다	
2. 역고소 유형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16
2-1. 역고소를 파생한 성폭력 사건의 기본적인 특징 : 강제추행 11건(30.6%)으로 가장 높고, 가해자는 모두 남성 36건(100%)	
2-2. 성폭력 사건의 성폭력피해자가해자 관계 : 직장 및 공동체 41.7%로 가장 높아	
2-3. 역고소 유형 : 무고, 명예훼손 외 다양한 형사적 역고소 유형 존재	
2-4. 역고소 유형별 역고소 시점 : 무고로 역고소 하는 시점은 성폭력 사건 불기소 결정 후가 5건(9.8%)으로 가장 많아	
2-5. 가해자의 역고소 결과 :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22건(43.1%)으로 가장 많아	
III. 결론	22

1. 2021년 기본 상담 통계

1. 연도별 상담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년 동안 총 87,964회의 상담을 해왔다. 2021년 전체상담은 1,415회(595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322회(537건)로 전체상담건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0.3%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 건수는 당해년도 초기상담만을 산정한 단위고 횟수는 지속상담을 포함한 단위다. 성폭력 상담 건수가 2019년 이후 줄고 있으나 성폭력 상담횟수는 2019년 1,294회, 2020년 1,258회, 2021년 1,322회로 큰 차이가 없어 지속지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소는 상담 지원의 내실화를 목표로 상담 및 지원체계를 안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 상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2012	2,390	1,437	1,321	91.9
2013	2,253	1,531	1,418	92.6
2014	2,185	1,602	1,450	90.5
2015	2,064	1,422	1,308	91.9
2016	2,224	1,501	1,353	90.1
2017	2,118	1,414	1,260	89.1
2018	1,940	1,359	1,189	87.5

2019	1,419	1,028	912	88.7
2020	1,324	779	715	91.8
2021	1,415	595	537	90.3
총	87,964	58,209	49,092	84.3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3.5%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5.2%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건수 537건 중 502건(93.5%)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329건(61.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피해 당시 성인이었던 여성의 비율이 2020년 70.8%에서 61.3%로 약간 줄어들었고, 피해 당시 청소년이었던 여성의 비율(2020년 10.3% → 2021년 13%)과 피해 당시 어린이이었던 여성의 비율(2020년 6.9% → 2021년 9.7%)이 늘어났다. 한편, 남성 피해자의 비중은 5.2%(28건)로 예년에 비해 약간 줄었다.

표 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5 (0.9)	329 (61.3)	70 (13.0)	52 (9.7)	14 (2.6)	32 (6.0)	502 (93.5)
남	-	23 (4.3)	2 (0.4)	3 (0.6)	-	-	28 (5.2)
기타	-	-	-	-	-	-	-
미상	-	3 (0.6)	-	1 (0.2)	-	3 (0.6)	7 (1.3)
총계	5 (0.9)	355 (66.1)	72 (13.4)	56 (10.4)	14 (2.6)	35 (6.5)	537 (100)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89.8%가 남성, 이중 성인은 66.1%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537건 중 482건 (89.8%)을 차지하였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355건(6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예년에 비해 가해자의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성별 미상의 비율이 7.6%(41건)로 높게 집계되었다.

표 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	13 (2.4)	-	-	-	1 (0.2)	14 (2.6)
남	15 (2.8)	355 (66.1)	50 (9.3)	5 (0.9)	4 (0.7)	53 (9.8)	482 (89.8)
기타	-	-	-	-	-	-	-
미상	-	10 (1.9)	2 (0.4)		1 (0.2)	28 (5.2)	41 (7.6)
총계	15 (2.8)	378 (70.4)	52 (9.7)	5 (0.9)	5 (0.9)	82 (15.3)	537 (100)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전체 상담 중 65.9%가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32.6%가 대리인 상담의뢰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537건 중 354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175건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대리인 상담은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106건(1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한 비중은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표 4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

<단위: 건(%)>

본인	대리인 175(32.6)									본인/ 대리인 (동석)	미상	전체상담 건수
	가족 · 친인척	데이트 상대	이웃 · 친구	직장	학교 · 학원	변호 사	공공 및 유관기관	시민사 회단체	기타			
354 (65.9)	106 (19.7)	14 (2.6)	12 (2.2)	12 (2.2)	8 (1.5)	1 (0.2)	10 (1.9)	3 (0.6)	9 (1.7)	6 (1.1)	2 (0.4)	537 (100)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강간 피해 상담 건수 거의 비슷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이 193건(3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강간 피해 상담 역시 190건(35.4%)으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간 피해의 경우, 2018년 28.5%, 2019년 31.1%, 2020년 34.4%에 이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

음으로는 성희롱 63건(11.7%)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20세 이상),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19세-14세)일 경우 강간 피해가 강제추행보다 약간 더 많았다.

표 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피해자 연령						총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	3 (0.6)	3 (0.6)	-	-	-	6 (1.1)	190 (35.4)
	강간 (유사강간포함)	1 (0.2)	80 (14.9)	26 (4.8)	19 (3.5)	3 (0.6)	9 (1.7)	138 (25.7)	
	준강간	-	33 (6.1)	1 (0.2)	-	-	1 (0.2)	35 (6.5)	
	강간미수	-	10 (1.9)	-	1 (0.2)	-	-	11 (2.0)	
강제 추행	강제추행	3 (0.6)	126 (23.5)	16 (3.0)	28 (5.2)	8 (1.9)	7 (1.3)	188 (35.0)	193 (35.9)
	준강제 추행	-	4 (0.7)	-	-	-	1 (0.2)	5 (0.9)	
성희롱		1 (0.2)	52 (9.7)	7 (1.3)	-	-	3 (0.6)	63 (11.7)	
통신매체이용음란		-	11 (2.0)	3 (0.6)	-	-	2 (0.4)	16 (3.0)	
카메라이용촬영		-	14 (2.6)	10 (1.9)	-	1 (0.2)	3 (0.6)	28 (5.2)	
스토킹		-	6 (0.6)	1 (0.2)	-	-	1 (0.2)	8 (1.5)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	-	-	-	-	-	
미상		-	16 (3.0)	5 (0.9)	8 (1.5)	2 (0.4)	8 (1.5)	39 (7.3)	
총계		5 (0.9)	355 (66.1)	72 (13.4)	56 (10.4)	14 (2.6)	35 (6.5)	537 (100)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1.5%

<표6. 가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20세 이상) 가해자가 378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 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가해자 연령						총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	2 (0.4)	3 (0.6)	-	-	1 (0.2)	6 (1.1)	190 (35.4)
	강간 (유사강간포함)	3 (0.6)	99 (18.4)	15 (2.8)	2 (0.4)	-	19 (3.5)	138 (25.7)	
	준강간	-	33 (6.1)	-	-	-	2 (0.4)	35 (6.5)	
	강간미수	-	8 (1.5)	1 (0.2)	-	-	2 (0.4)	11 (2.0)	
강제추행	강제추행	7 (1.3)	137 (25.5)	20 (3.7)	2 (0.4)	5 (0.9)	17 (3.2)	188 (35.0)	193 (35.9)
	준강제추행	-	4 (0.7)	-	-	-	1 (0.2)	5 (0.9)	
성희롱		4 (0.7)	48 (8.9)	6 (1.1)	-	-	5 (0.9)	63 (11.7)	
통신매체이용음란		-	5 (0.9)	3 (0.6)	-	-	8 (1.5)	16 (3.0)	
카메라이용촬영		-	21 (3.9)	1 (0.2)	-	-	6 (1.1)	28 (5.2)	
스토킹		1 (0.2)	7 (1.3)	-	-	-	-	8 (1.5)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	-	-	-	-	-	
미상		-	14 (2.6)	3 (0.6)	1 (0.2)	-	21 (3.9)	39 (7.3)	
총계		15 (2.8)	378 (70.4)	52 (9.7)	5 (0.9)	5 (0.9)	82 (15.3)	537 (100)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4.2%

〈표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452건 (84.2%)으로 약 85%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34건(37.7%)으로 성인 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작년 이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42건(11.8%)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청소년(19세-14세)은 친족에 의한 피해가 20건(27.8%)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에서 만난 관계에 의한 피해가 14건(19.4%)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36건 (64.3%), 9건(64.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간순대로 통계를 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5.4%였던 친족 성폭력은 2021년에 14.2%로 증가했다. 이는 용기를 내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대응하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유형 연령	아는 사람 452(84.2)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족외 인척 85(15.8)		직장	친밀한 관계	온라인	동네 사람	서비 스 제공 자	학교	유치원/ 학원	주변 인의 지인	동호 회	기타			
	친족	친족 외 인척													
2018년	64 (5.4)	66 (5.6)	353 (29.7)	86 (7.2)	41 (3.4)	65 (5.5)	60 (5.0)	136 (11.4)	39 (3.3)	66 (5.6)	13 (1.1)	40 (3.4)	73 (6.1)	87 (97.3)	1189 (100.0)
2019년	78 (8.6)	9 (1.0)	276 (30.3)	94 (10.3)	24 (2.6)	92 (10.1)	41 (4.5)	87 (9.5)	33 (3.6)	28 (3.1)	31 (3.4)	6 (0.7)	43 (4.7)	70 (7.7)	912 (100.0)
2020년	59 (8.3)	43 (6.0)	215 (30.1)	86 (12.0)	32 (4.5)	44 (6.2)	33 (4.6)	50 (7.0)	20 (2.8)	33 (4.6)	15 (2.1)	7 (1.)	40 (5.6)	38 (5.3)	715 (100.0)
2021년	76 (14.2)	9 (1.7)	138 (25.7)	112.2 (10.2)	29 (5.4)	45 (8.4)	19 (3.5)	34 (6.3)	17 (3.2)	18 (3.4)	10 (1.9)	2 (0.4)	40 (7.4)	45 (8.4)	537 (100.0)
고령 (65세 이상)	1 (20.0)	-	-	1 (20.0)	-	2 (40.0)	-	-	-	-	-	-	-	1 (20.0)	5 (100.0)
성인 (20세 이상)	8 (2.3)	5 (1.4)	134 (37.7)	42 (11.8)	15 (4.2)	29 (8.2)	18 (5.1)	19 (5.4)	10 (2.8)	14 (3.9)	8 (2.3)	2 (0.6)	27 (7.6)	24 (6.8)	355 (100.0)
청소년 (19세-14세)	20 (27.8)	1 (1.4)	-	6 (8.3)	9 (12.5)	6 (8.3)	-	14 (19.4)	2 (2.8)	3 (4.2)	-	-	7 (9.7)	4 (5.6)	72 (100.0)
어린이 (13세-8세)	36 (64.3)	3 (5.4)	-	-	-	5 (8.9)	1 (1.8)	1 (1.8)	2 (3.6)	1 (1.8)	-	-	3 (5.4)	4 (7.1)	56 (100.0)
유아 (7세 이하)	9 (64.3)	-	-	-	-	1 (7.1)	-	-	3 (21.4)	-	-	-	1 (7.1)	-	14 (100.0)
미상	2 (5.7)	-	4 (11.4)	6 (17.1)	5 (14.3)	2 (5.7)	-	-	-	-	2 (5.7)	-	2 (5.7)	12 (34.3)	35 (100.0)

8. 피해자 지원내용

<표8. 피해자 지원내용>은 본 상담소가 2021년 상담을 의뢰해온 피해자를 상담소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중복표기 하였으며 지속 지원 상담을 포함한 횟수로 표를 집계하였다. 심리·정서 지원이 865회(48.1%)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법적 지원이 639회(35.5%)로 많았다.

법적 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의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및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진다. 심리 및 정서 지원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원이며 기관연계는 좀 더 긴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거주 지역의 상담소나 타 단체를 안내하거나 기관에 직접 연계 의뢰한 경우이다. 기타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 경우를 나타낸다.

표 8 피해자 지원내용(중복)

<단위: 회(%)>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쉼터연계	기관연계	기타	전체지원수
	의료기관 연계·동행	의료비지원 관련 상담					
639 (35.5)	38	131	865 (48.1)	2 (0.1)	103 (5.7)	20 (1.1)	1,798 (100.0)
	169 (9.4)						

II. 2021년 상담통계 세부분석

2021년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시위가 열렸다.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 상담통계에서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상담 비율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점점 커지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말하기가 상담통계에도 반영이 된 것이다. 이에 친족 성폭력 상담을 세부분석하였다. 한편,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흐름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괴롭히고 위축시키는 가해자들의 전략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역고소로 이어지고 있고 2021년에도 상담소는 다양한 유형의 역고소 사건을 상담 및 지원했다. 이에 두 번째로 역고소 유형 상담을 세부분석하였다.

1. 친족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지난 2021년 11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매마토 일인시위 모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공폐단,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주최하는 제 1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죽은 자가 돌아왔다>가 열렸다.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깔려 죽음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이다. 결의에 찬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과 참여자들이 함께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며 현장은 뜨거웠다.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세부통계 주제는 친족 성폭력이었는데, 이 분석에서 친족 성폭력 피해 이후 상담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경우가 55.2%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하 성폭력특별법)에서 강간의 경우 2007년 12월 21일 이후의 범행일 때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그 이전 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상담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반 이상인 친족 성폭력의 경우 말하기를 시작한 이후 사건 회복을 위해 법률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면 공소시효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 성폭력 상담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5.4%였던 친족 성폭력은 2019년 8.6%, 2020년 8.3%를 유지하다가 2021년 14.2%로 큰 비중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이번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세부통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2021년 친족에 의한 성폭력 상담은, 전체 성폭력 상담 537건 중 76건에 해당한다. 지난 2019년 친족 성폭력 세부통계와 달리 이번 친족 성폭력 세부통계 및 분석에서는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둘러싼 환경을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성폭력특별법에서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본 상담소에서는 친부, 의부, 친형제, 시부를 따로 분류하였고, 형부, 제부, 의형제는 2촌 이내 친족, 조부, 삼촌, 사촌은 4촌 이내 친족에 포함되어 있다. <표11. 가해자 연령별 피해자와 관계 참조>

1-1. 친족 성폭력 피해 중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가 89.5%

친족 성폭력에서 강제추행은 46.1%(35건)로 전체 성폭력 상담통계에서 강제추행 35.9%(293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강간¹⁾의 경우도 43.3%(33건)²⁾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통계의 강간 35.4%(190건)보다 높은 수치이다. 상담 시 범죄유형이 드러나지 않은 미상의 성폭력 상담이 8건(10.5)이었다. 전체 성폭력상담에서 강제추행과 강간의 건수는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의 71.3%인데 비해, 친족성폭력의 경우, 강제추행과 강간의 건수는 전체 친족성폭력 피해 중 89.5%에 달해 약 20%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친족 성폭력 피해에서 특히 성폭력 유형이 강제추행과 강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피해자 연령별 피해 유형

<단위: 건(%)>

연령 \ 유형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유사강간	미상	합계
고령 (65세 이상)	-	-	1 (1.3)	-	-	1 (1.3)
성인 (20세 이상)	3 (3.9)	-	4 (5.3)	-	1 (1.3)	8 (10.5)
청소년 (19세-14세)	9 (11.8)	-	8 (10.5)	1 (1.3)	2 (2.6)	20 (26.3)
어린이 (13세-8세)	13 (17.1)	1 (1.3)	17 (22.4)	2 (2.6)	3 (3.9)	36 (47.4)
유아 (7세 이하)	1 (1.3)	-	5 (6.6)	1 (1.3)	2 (2.6)	9 (11.8)
미상	2 (2.6)	-	-	-	-	2 (2.6)
합계	28 (36.8)	1 (1.3)	35 (46.1)	4 (5.3)	8 (10.5)	76 (100)

1-2. 친족 성폭력 가해자의 98.7% 남성, 친형제에 의한 피해가 27.6%로 가장 높아

<표10. 가해자의 성별 및 연령>을 보면 가해자는 75건(98.7%)이 남성이었고, 미상이 1건(1.3%)이었다. 가해자의 성별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1건만 제외하면 전체가 남성 가해자에 해당했다. 가해자의 나이는 성인(20세 이상)인 경우가 39건(51.3%)로 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청소년(14세-19세)인 경우가 19건(25%)이었다.

표 10 가해자의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연령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총계
-----	----	-----	-----	----	----	----

1) 유사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특수강간 모두 포함한 값
 2) 친족성폭력 강간, 강간미수, 유사강간의 값을 합한 값

성별	(20세 이상)	(19세-14세)	(13세-8세)	(7세 이하)		
남	39 (51.3)	19 (25.0)	4 (5.3)	1 (1.3)	12 (15.8)	75 (98.7)
미상	-	-	-	1 (1.3)	-	1 (1.3)
총계	39 (51.3)	19 (25.0)	4 (5.3)	2 (2.6)	12 (15.8)	76 (100)

<표11. 가해자 연령별 피해자와 관계>을 보면, 가해자가 친형제인 경우가 21건(27.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촌의 경우가 18건(23.7%), 친부가 15건(19.7%)으로 이어졌다. 삼촌이 가해자인 경우도 11건(14.5%)으로 높았고, 의부 7건(9.2%), 의형제 2건(2.6%), 형부와 시부가 각각 1건이었다. 성인 가해자의 경우 친부인 경우가 성인 가해자의 39건 중에서 15건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삼촌이 차지했다. 가해자가 청소년(14-19세)인 경우는 친형제가 10건, 사촌인 경우가 9건으로, 거의 반반의 비율을 차지했다.

표 11 가해자 연령별 피해자와 관계

<단위: 건(%)>

관계 연령	친부	의부	친형제	의형제	사촌	삼촌	형부	시부	합계
성인 (20세 이상)	15 (19.7)	7 (9.2)	4 (5.3)	1 (1.3)	1 (1.3)	9 (11.8)	1 (1.3)	1 (1.3)	39 (51.3)
청소년 (19세-14세)			10 (13.2)		9 (11.8)				19 (25.0)
어린이 (13세-8세)			2 (2.6)	1 (1.3)	1 (1.3)				4 (5.3)
유아 (7세 이하)					2 (2.6)				2 (2.6)
미상			5 (6.6)		5 (6.6)	2 (2.6)			12 (15.8)
합계	15 (19.7)	7 (9.2)	21 (27.6)	2 (2.6)	18 (23.7)	11 (14.5)	1 (1.3)	1 (1.3)	76 (100)

1-3.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96.1% 여성, 그 중에서 7세~13세인 어린이 시기 피해가 44.7%로 가장 높아

<표12. 친족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73건(96.1%), 남성 피해자는 2건(2.6%), 미상의 경우가 1건(1.3%)으로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중 가장 피해가 많은 시기는 8세에서 13세인 어린이 시기가 36건(47.4%)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9년 친족 성폭력 세부 분석 시 8세~13세 어린이 시기 피해가 29건(33.3%)이었던 것과 비교해 봐도 더 늘어난 수치이다. 그다음으로 청소년(14세-19세)이 20건(26.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유아(7세 이하)시기의 피해가 9건(11.8%)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통계에서 피해자의 연령 중 성인 여성의 비율이 61.3%로 가장 높고, 청소년 피해 13%, 어린이 9.7%, 유아 2.6%인 것을 두고 볼 때 전체 성폭력 상담보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다른 연령대 피해의 양상을 보인다. 아무래도 어린이 시기에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이 가족, 친족 공동체가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분석할 수 있다. 또 전체 성폭력 상담 통계에서 2020년에 비해 여성 청소년, 여성 어린이가 피해자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에 친족 성폭력 상담 비율이 늘어난 것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2 친족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 (1.3)	8 (10.5)	20 (26.3)	34 (44.7)	9 (11.8)	1 (1.3)	73 (96.1)
남				2 (2.6)			2 (2.6)
미상						1 (1.3)	1 (1.3)
총계	1 (1.3)	8 (10.5)	20 (26.3)	36 (47.4)	9 (11.8)	2 (2.6)	76 (100)

1-4. 친족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 중 공소시효 도과된 건이 57.9%

친족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 중 57.9(44건)이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담이었고, 이미 법적 진행 중이거나 처벌했거나 고소 전 단계이지만 공소시효가 유효한 것은 32.9%, 알 수 없는 경우는 9.2%였다. <표 13. 상담 공소시효 도과유효 참조>

표 13 상담 공소시효 도과·유효

<단위: 건(%)>

백분율	공소시효	도과	유효	미상
76 (100)		44 (57.9)	25 (32.9)	7 (9.2)

1-5. 대리인 상담 중 78.1%가 가족친인척 상담

<표14. 친족 성폭력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을 보면 친족 성폭력 상담의 경우 57.9%가 본인 상담

이고, 42.1% 가 대리인 상담이다. 전체 성폭력 상담에서 본인 상담이 65.9% 354건, 대리인 상담이 32.6%를 차지했던 것으로 비교했을 때, 친족성폭력 피해의 경우, 대리인 상담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리인 상담 중 78.1%가 가족 친인척이 하는 상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 14 친족 성폭력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

<단위: 건(%)>

관 계 건수	본인	대리인 32(42.1)					
		가족친인척	이웃친구	공공 및 유관기관	데이트상대	기타	학교학원
76 (100)	44 (57.9)	25 (32.9)	2 (2.6)	2 (2.6)	1 (1.3)	1 (1.3)	1 (1.3)

<표15. 친족 성폭력 대리인 상담 중 주변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리인이 상담한 경우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해 주변인들의 반응이 “지지적이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75%(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가감정을 보인다”라고 말한 경우가 두 번째로 18.8%(6건) 이었다.

표 15 친족 성폭력 대리인 상담 중 주변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단위: 건(%)>

건수	태도	가해자보호	과잉보호	양가감정	지지
32 (100)		1 (3.1)	1 (3.1)	6 (18.8)	24 (75.0)

반면 피해자 본인이 상담한 경우, 피해자를 주변인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한 경우와, 방관, 비난한다고 말한 경우가 각각 22.7%(10건)이었으며, 가해자를 보호하는 환경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9.1%(4건)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16. 친족 성폭력 본인 상담 중 주변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참조>

표 16 친족 성폭력 본인 상담 중 주변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단위: 건(%)>

건수	태도	가해자보호	미상	방관	비난	양가감정	지지
44 (100)		4 (9.1)	9 (20.5)	10 (22.7)	10 (22.7)	2 (4.5)	9 (20.5)

따라서 친족 성폭력의 대리인 상담의 경우 피해자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주변인들이 많아 이를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본인 상담의 경우 피해 생존자 주변에 생존자를 지지하기보다 비난하고 방관하며 가해자를 보호하는 환경이 더 많아 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상담 요청을 하

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1-6. 피해 생존자의 34.2%가 주변인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말하기를 시작한다

〈표17. 상담 전 대응 방법〉을 보면 피해 생존자가 상담 전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55.8%로 절반을 넘어선다. 그만큼 사건 시간 안에서 피해 생존자는 주변인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해왔다.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하면서 처음 피해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했을 것이고, 그 ‘말하기’의 시작은 사건 해결과 일상 회복의 첫 발걸음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 생존자들은 왜 말하기를 시작했을까? 상담 일지에서 드러난 ‘말하기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표 17 상담 전 대응방법(중복)

<단위: 건(%)>

건수 \ 대응방법	의료	법률	주변인 도움요청	사과요구
77 (100)	10 (13.0)	8 (10.4)	43 (55.8)	16 (20.8)

100명의 피해 생존자가 있다면 100가지의 사연이 있겠지만 피해 생존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 주변인들에게 지지 받기 위해 34.2%(26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재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19.7%(15건), 법적 처벌을 위해서 15.8%(12건), 가해자에게 사과받기 위해서 7.9%(6건), 나머지 미상 2.6%(2건) 이었다.

표 18 말하기를 시작한 이유

<단위: 건(%)>

건수 \	가해자에게 사과받기 위해서	법적처벌을 위해서	주변인들에게 지지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현재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미상
76 (100)	6 (7.9)	12 (15.8)	26 (34.2)	15 (19.7)	15 (19.7)	2 (2.6)

상담하기 전 주변인에게 처음 말하기를 시작할 때, 처음 상담전화를 통해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해 생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변인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다. 주로 성인 이전 발생하는 피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 될 때까지 법적인 진행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도 주변인들에게 지지 받기 어려운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말하기를 시작하고 일상 회복하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주변의 반응은 지지와 연대일 것이다.

2. 역고소 유형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2018년 미투운동을 기점으로 피해생존자의 말하기가 확산되었으나, 가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넘어서는 보복성 역고소는 말하기 확산의 가림막이 되기도 했다. 가해자들의 역고소가 최신현상은 아니지만, 흔히 역고소하면 떠올리는 무고, 명예훼손 외 다양한 유형의 형사적 역고소를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혐의를 방어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업계는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성범죄 가해자 전문 법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상담현장에서도 법적대응을 고려하는 많은 수의 성폭력피해자들이 보복성 역고소에 대해 큰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번 세부통계 및 분석을 통해 전년도 역고소 현황을 파악하려 한다. 기존 세부통계 시 최초상담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데, 역고소 피해의 경우 기존 성폭력 사건 지원 중 또는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역고소 세부통계에서는 최초상담, 지속상담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에 이뤄진 역고소 상담건수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1 역고소를 파생한 성폭력 사건의 기본적인 특징 : 피해유형은 강제추행 11건(30.6%)으로 가장 높고, 가해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 36건(100%)

역고소 이전 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강간>준강간 순으로 피해가 보고되었다. 강간과 추행의 피해가 추후 역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형법상 강간의 경우 폭행·협박을,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성폭력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9 성폭력사건 성폭력피해자의 성별·피해유형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카메라이 용촬영	미상	총계
여	10 (27.8)	1 (2.8)	8 (22.2)	11 (30.6)	2 (5.6)	2 (5.6)	1 (2.8)	35 (97.2)
남	0 (0.0)	0 (0.0)	0 (0.0)	1 (2.8)	0 (0.0)	0 (0.0)	0 (0.0)	1 (2.8)
총계	10 (27.8)	1 (2.8)	8 (22.2)	12 (33.3)	2 (5.6)	2 (5.6)	1 (2.8)	36 (100.0)

<표20.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전체피해의 35건(97.2%)가 여성 피해자이며, 성인 피해자가 32건(88.9%)을 차지한다. 성인 남성 피해 1건(2.8%)의 경우 성인 남성 가해자가 성인 남성 피해자를 역고소한 사례이다.

표 20 성폭력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총계
여	-	32 (88.9)	3 (8.3)	-	-	35 (97.2)
남	-	1 (2.8)	-	-	-	1 (2.8)
총계	-	33 (91.7)	3 (8.3)	-	-	36 (100.0)

<표21.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가해자는 36건(100%)모두 남성이며, 성인 33건(91.7%), 청소년 3건(8.3%)이다. 성인의 경우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보복성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3건(8.3%) 모두 가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이 개입하여 역고소를 한 경우이다.

표 21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총계
여	-	-	-	-	-	
남	-	33 (91.7)	3 (8.3)	-	-	36 (100.0)
총계	-	33 (91.7)	3 (8.3)	-	-	36 (100.0)

2-2 성폭력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 : 직장 및 공동체 41.7%로 가장 높아

역고소 피해 사례 중 원사건 성폭력의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직장 및 공동체(지인)친밀한 관계 순이다. 직장 및 공동체의 경우 15건(41.7%)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이중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가 11건(30.6%)이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직장 및 공동체인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사내 대응이나 공론화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에 가해자는 가해 사실이 밝혀지거나 유죄 시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잃을 것을 우려하여 역고소로 성폭력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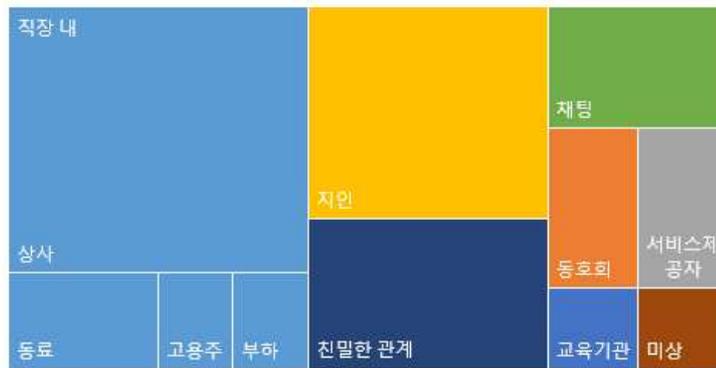
지인과 친밀한 관계의 경우 주변인들이 서로 아는 사례가 많아 가해자의 가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집단 내에서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스스로 법적 대응등을 포기하도록 역고소의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2 성폭력 사건의 성폭력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건(%)>

교육 기관	동호 회	서비스제 공자	지인	직장 및 공동체					채팅	친밀한 관계	미상	총계
				고용 주	상사	동료	부하	총계				
1 (2.8)	2 (5.6)	2 (5.6)	7 (19.4)	1 (2.8)	11 (30.6)	2 (5.6)	1 (2.8)	15 (41.7)	3 (8.3)	5 (13.9)	1 (2.8)	36 (100.0)

그림1 성폭력 사건의 성폭력피해자·가해자 관계



2-3 역고소 유형 : 무고, 명예훼손 외 다양한 형사적 역고소 유형 존재

<표23. 역고소 유형>은 성폭력 사건 성폭력피해자 및 조력자가 입은 역고소 유형으로, 성폭력피해자 본인이 역고소피해를 입은 경우는 47건(92.2%)을 차지한다. 흔한 역고소 유형인 무고, 명예훼손 외에도 여러 형사적 역고소 피해가 있고, 기타로는 강요, 강금,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주거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이 있다. 폭행으로 역고소 된 사례 등은 성폭력 피해 시 방어 행동, 개인적인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마찰을 문제 삼는 등의 사례였다. 공갈의 경우, 법적 대응 대신 개인적인 해결을 위해 양측의 변호사끼리 합의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조력인이 역고소를 겪은 사례는 4건(7.8%)이었다. 이 중 재판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조력인을 위증으로 고소한 사례나, 조력인이 가해자를 직접 만나 가해 사실을 인정받았는데 가해자가 기타(강요, 주거침입)로 조력인을 역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조력인에 대한 역고소의 경우 주변 지지자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자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역고소 피해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서 파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외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불가하고, 피고인 국선 변호인제도로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대응에 난항을 겪는다.

표 23 역고소 유형(중복포함)

<단위: 건(%)>

역고소 유형 역고소 성폭력피해자	무고 (가해자)	무고 (검사인지)	명예훼손	손해배상	폭행	위증	공갈	역고소협박	기타	총계
본인	14 (27.5)	1 (2.0)	8 (15.7)	3 (5.9)	4 (7.8)	2 (3.9)	2 (3.9)	2 (3.9)	10 (19.6)	47 (92.2)
조력인	0 (0.0)	0 (0.0)	1 (2.0)	0 (0.0)	0 (0.0)	1 (2.0)	0 (0.0)	0 (0.0)	3 (5.9)	4 (7.8)
총계	14 (27.5)	1 (2.0)	9 (17.6)	3 (5.9)	4 (7.8)	3 (5.9)	2 (3.9)	2 (3.9)	11 (21.6)	51 (100.0)

2-4 역고소 유형별 역고소 시점 : 무고로 역고소 하는 시점은 성폭력 사건 불기소 결정 후가 5건(9.8%)으로 가장 많아

2018년 5월, 대검찰청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8년 5월 성폭력 수사메뉴얼을 개정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더라도 검찰은 해당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무고 사건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³⁾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표24. 역고소 유형별 역고소 시점>을 보면 경찰 단계에서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3건(5.9%)에 달한다. 물론 실질적으로 무고혐의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개시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는 심리적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인 보복성 역고소 유형이다.

무고의 가장 높은 역고소 시점으로는 불기소 결정 후가 5건(9.8%)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측에서 불기소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것인데, 해당 유형의 경우 성폭력피해자가 고소인으로서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의 결정·명령 불복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무고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 폭행, 공갈, 기타 등의 역고소 유형의 경우 고소 전 역고소가 12건(23.5%)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성폭력 성폭력피해자들이 법률상담을 통해 역고소 건의 기소 가능성이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도, 역고소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법적 대응을 주저하게 만든다.

실제 역고소를 하지 않고 협박만 하는 경우도 2건(3.9%)이었다. 이 중 한 사례는 가해자 주변인들에게 성폭력피해자를 특정하며 무고 역고소를 예고한 건이다. 역고소 시 불송치 확률이 높은 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감이 극에 달해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역고소 협박이 2건밖에 집계되지 않은 이유는, 상담일지 작성 시 통계를 위한 주요 입력 항목에 역고소를 체크하고

3) 최란, 「'진짜'성폭력피해자와 '가짜'성폭력피해자를 선별하는 성폭력 무고 수사과정의 문제」,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2호.(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2018, 105쪽.

기타(역고소 협박)이라고 기재한 일지만 통계로 집계된 것으로, 실제로는 역고소 위협을 받는 내담자들의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역고소 유형별 역고소 시점(중복 포함)

<단위: 건(%)>

역고소 시점 역고소 유형	고소 전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불기소 후	항고 기각 후	재정 신청 단계	재정 신청 기각 후	재판 중	판결 후	미파악	총계
무고	0 (0.0)	3 (5.9)	1 (2.0)	5 (9.8)	1 (2.0)	2 (3.9)	0 (0.0)	2 (3.9)	0 (0.0)	1 (2.0)	15 (29.4)
명예훼손	3 (5.9)	1 (2.0)	1 (2.0)	0 (0.0)	0 (0.0)	2 (3.9)	0 (0.0)	1 (2.0)	0 (0.0)	1 (2.0)	9 (17.6)
손해배상	0 (0.0)	1 (2.0)	0 (0.0)	1 (2.0)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3 (5.9)
폭행	1 (2.0)	2 (3.9)	0 (0.0)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0 (0.0)	4 (7.8)
위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3.9)	1 (2.0)	0 (0.0)	3 (5.9)
공갈	1 (2.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0)	0 (0.0)	2 (3.9)
역고소 협박	1 (2.0)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3.9)
기타	6 (11.8)	1 (2.0)	4 (7.8)	1 (2.0)	0 (0.0)	0 (0.0)	0 (0.0)	0 (0.0)	1 (2.0)	0 (0.0)	11 (21.6)
총계	12 (23.5)	8 (15.7)	6 (11.8)	8 (15.7)	1 (2.0)	5 (9.8)	1 (2.0)	5 (9.8)	3 (5.9)	2 (3.9)	51 (100.0)

2-5 가해자의 역고소 결과 :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22건(43.1%)으로 가장 많아

<표25. 역고소 결과>는 가해자의 역고소 결과를 나타냈다.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22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유죄 3건(5.9%)은 무고가 아닌 다른 형사 역고소의 결과이다. 아직 역고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16건(31.4%)의 경우 성폭력 원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결정 난 사례가 다수로 기소의 가능성이 낮지만, 우선 대응을 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심리적 압박감을 지닌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표 25 역고소 결과(중복 포함)

<단위: 건(%)>

역고소 안함	소 취하	불기소	무죄	유죄	진행 중	미파악	총계
2 (3.9)	1 (2.0)	22 (43.1)	3 (5.9)	3 (5.9)	16 (31.4)	4 (7.8)	51 (100.0)

전년도 역고소 유형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을 통해 역고소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역고소의 유형이었던 무고, 명예훼손 외에도 다양한 형사적 역고소가 성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를 돕는 조력인에게도 행해지고 있다.

법적 권리를 넘어선 보복성 역고소가 남용되는 현실에 역고소 피해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성폭력수사 매뉴얼 원칙에 따라 무고 역고소 시 원 성폭력사건의 수사가 완료된 뒤 진행하도록 하며, 무고뿐만 아니라 원성폭력 사건으로 파생된 다양한 형사적 역고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사 매뉴얼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권리로서 성폭력 국선 변호사의 조력 범위가 확대되어 역고소피해 시에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III. 결론

- 2021년 전체 상담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상담 비율이 전체 14.2%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 당시 연령이 청소년, 어린이인 비율도 함께 증가했다. 2021년, 광화문에서는 매달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시위가 열렸고, 11월 말에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죽은 자가 돌아왔다>가 열렸다.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진 한 해였고 이것이 상담통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친족 성폭력 유형 상담을 세부분석 하였다.
- 친족 성폭력 상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해자는 친형제(27.6%)였다. 그다음으로는 사촌(23.7%), 친부(19.7%)가 뒤를 이었다. 한편, 피해자의 연령을 볼 때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한 시기는 8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시기(47.4%)였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이 시기에 가족, 친족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 위와 같이 주로 어린이 시기에 발생하는 친족 성폭력은 피해를 바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친족 성폭력 상담 중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사건은 57.9%에 달했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다.
- 친족 성폭력 상담의 경우, 전체 상담통계와 비교해 대리인 상담 비중이 높았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 주변인의 태도를 볼 때 대리인 상담의 경우, 그 대리인이 주로 피해자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지지자였던 반면, 본인 상담의 경우, 주변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방관하며 가해자를 보호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흐름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괴롭히고 위축시키는 가해자들의 전략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역고소로 이어지고 있고 2021년에도 상담소는 다양한 유형의 역고소 사건을 상담 및 지원했다. 이에 두 번째로 역고소 유형 상담을 세부분석 하였다.
- 역고소 유형 상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피해자-가해자 관계는 직장 및 공동체(41.7%)였다. 가해자의 가해 사실이 밝혀지거나 유죄 시 직장 내에서 지위나 명예를 잃을 것을 우려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역고소 공세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역고소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고죄(29.5%)였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됐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님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다움과 성폭력 통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역공을 시도하

는 것이다. 2018년, 대검찰청은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무고 사건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등 불복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무고죄 수사를 시작하는 수사 기관이 많고 피해자는 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 그 다음으로 많은 역고소 유형은 명예훼손(17.6%)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성폭력 공론화를 하거나 피해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렸을 경우,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행하는 역고소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성폭력 고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해자가 고소를 시작하며 피해자를 위축시키기도 했다. 그 외 손해배상, 폭행, 위증, 공갈 등 다양한 유형의 역고소 상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를 지지하거나 조력한 피해자 주변인을 역으로 고소한 사례들도 있었다.

□ 보복성 역고소가 남용되는 현실에 역고소 피해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성폭력수사 매뉴얼 원칙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원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완전히 완료된 뒤 진행하도록 하며, 무고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으로 파생된 다양한 역고소 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뉴얼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권리로서 성폭력 국선 변호사의 조력 범위가 확대되어 역고소피해 시에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성폭력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피소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조력도 필요하다.